

GRACE 선교소식

2025년 2월 GMI-GKC 선교사 현황: 63개국 337명 (자체 파송 75%)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여, 현재 탈북민들을 위한 은혜동산 말씀축제를 인도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3만 8천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된 탈북민 교회는 전국적으로 약 74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탈북민 출신 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늘 그들의 마음 한편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고후 5:17). 성령 충만함을 받아 비전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엡 5:18).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신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통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두 차례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동산 TD(Tres Dias) 사역으로, 탈북민들이 복음을 확실히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축제로, TD를 받은 분들이 모여 귀한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첫 사랑을 회복하며, 새로운 비전을 찾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MI은혜교회(서울)신년축복성회: 2/21-2/23
- GIGL#9 및 인도 신학교 입학식: 2/24-2/28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왔지만, 소망 없이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회복되어 간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탈북민 사역이 어렵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낍니다.

P국

정00 / 정00 선교사

그동안 이곳 선교사역 20년 동안 주님으로 부터 부여 주신 은혜와 새로운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앞으로의 20년 간의 비전을 주님으로 부터 받기 위해, 사역자들과 함께 엘리야 금식기도원 겸 교회에서 3일에서 일주일 간 각자 주신 은혜 데로 금식을 하면서 새해를 다짐하며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그동안 숙원이었던 태양광전지 시설을 한국 NGO의 도움으로 모든 학교와 교회 그리고 선교관까지 12군데에 설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루에도 수없이 시도 때도 없이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5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 속에



서 공부를 해야 하고, 찌는 찜통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은 더 이상 없고, 비싼 전기세를 못 내서, 학교의 문을 닫아야 할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선교관도 이제 전기세를 내지 않고, 여름에도 햇볕만 있으면 에어컨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9회에 걸쳐, 매년 개종한 목사님 사역자와 목사님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불러모아 선교 컨퍼런스를 해마다 열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50명의 사역자들에게 프킴 154개의 군 단위, 40군데의 광역시 6군

데의 주, 총 200군데의 지역에, 책임자를 임명하여 200군데 중에 50군데를 선정하여 앞으로 그 지역의 복음전도자와 사역책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임명하는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2025년에는 이 사역을 확대하여 전국적인 미션컨퍼런스를 열어 100군데를 더 선정하여 모스크라까지 복음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를 추가 임명하고, 앞으로 전국 200군데에 그들을 통하여 사역센터 역할을 하는 그 곳에, 학교와 교회 병원 기술 비즈니스센터 등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

한00 / 손00 선교사

기쁨으로 찬양하는 방과후학교 아이들

언제 믿음이 자랄까 생각했던 아이들이 자라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들 마음 속에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였기에 아이들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과 함께하시며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요즘은 주의 사랑과 믿음이 들어가서 예배와 사역 준비를 곧잘 도와줍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아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요즘 보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주님은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방과후 학교를 개척했습니다. 집주인은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과 ETI 영어를 가르쳐주고, 복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유년기의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의 추억이 영원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을 주민들의 기도제목을 들으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인데... 이들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우랑가바드에서 인카운터 훈련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아우랑가바드에서 인카운터 훈련을 하루 동안 진행했습니다. 인카



운터 훈련은(Encounter)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팀멤버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운 게임시간도 갖고, 은혜 받은 간증도 나누며 맛있는 식사와 간식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길 데가 없어 데리고 온 아이들도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을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매일 고통가운데 힘들고 치진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와서 영육으로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주님의 평온의 안식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내의 한국어교육 및 여러 사역

아내는 가냥쿨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쪼개기도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한 명, 한 명 축복하며 안아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샤카르마 대학에서는 학생모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새로운 수업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어수업을 들은 몇몇 학생들이 꽃을 들고 찾아와서는 단독 외부강의를 의뢰하기도 해서 보람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아이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믿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함께 수업하는 한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며 예수님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MY 어린이집 아이들을 주님께로

함께 사역하는 씨니가 잘르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 사회, 미술, 체육 등을 통해 아이들을 전인적으

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종교와 반종교개종법 때문에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육 시간 틈틈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써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니 사역자가 자기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씨니 사역자 가족은 아이들과 심지어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이들을 찾아가 축복하고 돌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위해 쓰시려고 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비하르 인카운터 훈련 섬김

인도 비하르 인카운터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기차로 35시간 걸려 인카운터에 참석했는데 인도 여러 곳에서 심지어 네팔에서도 훈련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였습니다. 또 수짓 사역자와 씨니 사역자에게는 강의도 하며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델리 신학교 졸업식 및 리유니온

매년마다 델리에서 GM 신학교 졸업식 및 졸업생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주의 종으로 써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인도 여러 곳에서 오는데 기차타고 이틀이나 걸려서 이 행사에 참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찬양 시간에 주님을 향한 졸업생들의 열정, 순수함, 간절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결한 신부로, 강한 군사로 각자의 고향에 돌아가서 사역하는 졸업생 전도자들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 헌신의 시간을 가졌는데 선교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교지로 나아가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때에 인도의 주의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을 통해 열방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파나마

김재한 / Grace 선교사

지금은 미국 엘에이 은혜한인교회 선교관에 지난주 도착해 머물고 있습니다.

2024년 지난 해에도 교회와 성도님들의 이곳 파나마 다리엔지역 인디안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과 물질로 선교에 참여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선교동역자님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국에서 돌아와 이곳을 방문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이경원 목사님, 이홍건 목사님과 선교 비전을 나누게 하시고 선교에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매년 1월 첫주에 파나마한인교회에서 이곳을 방문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3년째 감당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년 1월 사역을 위해 파나마 한인교회 차성구목사님이 다녀 가셨습니다. 36년간 선교사역을 하면서 현지 한인교회와의 사역이 전무하였는데 이곳 파나마 한인교회와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 매년 수고해 주십니다. 현지 한인교회의 선교에 대한 장점은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 원주민선교사역에 많은 장점들이 있어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하나님의 중앙기적교회 창립9주년을 맞이해 금요일야경 창립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앙기적교회는 이곳 선교에 중심이 되는 교회로 충실한 폴로목사부부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개척 때부터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새롭게 정글교회들을 개척할 때는 성도들이 모두 함께 참여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 5개의 정글 교회



들이 개척되고 지속적으로 교회들을 방문해 돕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에 진행되는 이곳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교가 이제는 4년째 운영이 되면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 운영은 베네주엘라에서 파나마로 초청해 동역하는 하비엘 형제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비엘형제는 영적 자녀로 중학교 때 만나 제자훈련을 통해 지금은 은혜한인교회 GMU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2025년 6월이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인디안 기숙사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정글에 있는 인디안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이곳 야비사로 와야 하는데 이곳에 거주할 장소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인디안학생들이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곳 야비사공립학교에서 중, 고등학교 5년을 공부하는 동안 선교사가 이들을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우기철이라 공사진행이 늦어지지만 숙소와 식당이 건축 중입니다. 건물이 끝나면 내부에 각종 시설물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물탱크, 운동장 등 여러 공사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11월 마지막주는 은혜한인교회 GMU신학교에 중남미권을 맡고 계시는 권오은 교수님이 오셔서 요한 계시록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요 즘같이 세상 정세가 어두운 시대에 꼭 필요한 요한 계시록을 3박 4일간 오전, 오후로 강의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초청해 함께 강의를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2월달이 바쁘게 지나가며 한해를 마무리 했습니다. 선교사가 처음으로 개척해 정글에서 목재를 제재해 목재로 교회 건물을 건축한 Punta Grande 정글 인디안마을 베다니교회 건물이 10년이 넘으면서 벽과 기둥 등 목재가 썩어 하나님의 중앙교회 성도들이 3박 4일간 파송되어 정글에서 목재를 제재해 썩은 부분들을 제거하고 새 목재로 교회건물을 수리했습니다. 몇년이 지나면 나무들이 습기와 개미들로 인해 다시 썩기에 불력으로 다시 건물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모기업에서 보내온 정수기를 인디안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강물을 식수로 사용



하는 이곳 인디안마을들은 해마다 어린이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설치된 정수기로 인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매년 1월 첫주에 파나마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곳 선교지를 방문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첫해에도 33명의 한인성도님들이 이곳 선교지를 방문해 VBS, 마을 전도 등을 통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곳 다리엔정글지역은 한국정부에서 레드지역으로 한국인 철수 권고지역으로 지정되어 한인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단기선교를 통해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여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2024년도 주님의 축복과 후방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선교동역으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히는 한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 다리엔지역 인디안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선교사를 사용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해 선교 동역으로 함께 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콜롬비아로 향하는 펜아메리카 연장 도로가 올하는 1차 공사가 완공됩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그동안 배로만 들어 갈 수 있었던 다리엔 정글 인디안마을들을 육로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동안 콜롬비아 게릴라에 의해 접근이 불가능했던 다리엔갭 정글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하시고자 주님께서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펜아메리카도로를 연장해 다리엔갭에 도로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한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인디안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일본

송좌환 / 김정희 선교사

저희는 일본에 기독교인 총리가 세워지던 지난 10월 1일에 들어와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큐슈, 타케노, 고베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많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보낸 선교사들이 얼마나 충성과

성실로 사명감당하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반면 아직도 짐을 끌고 이리저리 다니는 저희 현실 앞에 빠른 정착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장기비자 없이 거주도 사역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주에 도쿄에서 참여했던 선교사 대회 중에 알게된 선교사님들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와 동역하기 원하는 좋은 사역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약속을 잡고, 다시 도쿄로 가게 되어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기도제목

1. 함께 동역하려 했던 이병용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주의 섭리가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나중에 더 좋은 만남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2. 매번 야간버스(9시간 소요)로 이동하던 거리를 렌트카로 짐을 싣고 가려는데, 안전을 위해서
3. 종교비자, 거주지, 사역지, 일본어학교, 후원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A국

최OO 선교사

새해에도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동역자님들에게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골 속의 작은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기 위해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해 말씀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2025년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동안 준비시켜 오신대로 주님의 뜻이 곧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첫주를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렸고 둘째주 말씀 세미나를 통해 믿음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주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서 네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해외사역에 나왔습니다. 산골 속의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기

쁨으로 드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시며 헌신적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하시는 모든 동역자님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 집니다. 동역자님들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 주님 속히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러시아 노보시빌스크

김경순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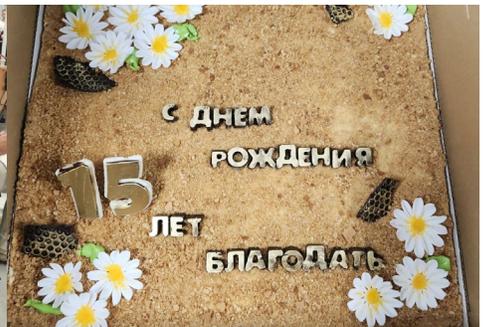
은혜교회 성전이 거의 완공되어서 헌당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건축을 방해해왔던 이슬람건설회사 회장 줄라이가 또다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보시비르스크 부시장을 부추겨

도시개발계획과의 관계된 시의원 13여명 전원 찬성으로 하는 지방법안을 통과시켜 은혜교회와 주변에 위치한 건물들을 철거한 후 고속도로를 내겠다는 내용의 공시를 지역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6월에는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 GMI 사역자,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가 저희 새성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3일간 150~200여명을 위한 재



정도 필요하고 세미나 기간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새 본당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국

기OO 선교사

교회 사역

설교(12월 22일): 동역자님들의 기도 응원으로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 받은 마리아와 같이 택하고 부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이길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과 골수를 쫓개 삶이 변화되는 일이 전하는 저나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성탄 예배(12월 25일): 한동안 성탄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지 못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쇼핑몰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에만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기념하여 헌금해 주신 분들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성탄 선물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학 사역

성탄을 맞이하여 현지사역자들과 후원 가정 방문하여 성탄 찬양을 부르며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섬기는 팀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성탄을 맞아 특별한 후원으로 함께한 교회와 후원자들로 인하여 더욱 풍성함으로 위로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월 1회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현지 사역자들이 방문하여 아이들과 신앙 교육을 하고 최근에는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며 신앙의 성장을 돕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후원 아동들과 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며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고3 친구들은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공을 선택하며 장학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주세요.

공홀 사역

성탄을 기념하며 경비원, 청소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생필품을 나누며 들을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분들이 빨리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지치 않고 계속하여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양육 및 제자훈련

기숙사 친구들과 공동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던 D3(전도 훈련 책) 양육을 마쳤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익힌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학생 공동체에서는 현지 사역자들을 통한 D3 양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오는 학생들의 모양이 다양한데 신입생들의 열정이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습관적 모임이 아닌 제자로 성장하는데 사모함이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경 통독

연대기적 성경 읽기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서 현지 사역자와 성경 통독을 독려하는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방학 중 성경 배경 지식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집중 통독의 시간을 계획 중인데 말씀의 중요성을 예배와 공동체에 나오는 성도들이 깨닫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어 배우는 학생과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성경으로 통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사역

기숙사에는 현재 2명의 학생과 한 명의 사역자가 살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사는 것과 상관없이 기숙사가 기도회, 공동체 모임, 양육 장



소로 사용되기에 2월에 2년간 재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웃들이 기숙사에서 예배와 찬양, 모임을 하는데 있어 반대가 없고 오히려 기숙사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생겨갑니다. 기숙사가 기도하는 집,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집, 사랑을 나누는 집이 되면 곳에서 온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웃에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 모임

사역과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적을 때라도 한국인 선생님들의 기도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이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욱 절실 할 때임을,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현지팀과의 기도모임은 기숙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기도 하고 이전의 장소에서는 지역 사람들이 의심하고 장소를 빌려 주신 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25년 예정 사역 및 협력 단체 소개

협력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HORAS)' 현지 단체는 2025년 기준으로 13년째 복음전도, 제자양육, 가족/청년/학생 공동체 섬김, 장학 사역, 교육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많은 부분 겹치고, 사역적인 생각이 비슷하여 2023년 8월부터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기도하고 논의하며 사역도 조금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역 이외에도 2025년에는 말씀, 전도, 선교 사역을 사역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전도 훈련 세미나, 비전 트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역자와 참여자들에게 지혜와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간증문

EL SALVADOR AFA #2기를 마치고

송찬용 집사 / G18

첫 선교, 설렘, 기대, 희망, 기쁨, 새로움, 신선함, 즐거움....

출발 전 6번의 팀멤버 미팅에서 열심히 기도으로 인도하시는 안영식 목사님의 모습에, 왜 그렇게 울부짖으며 팀멤버가 하나 되기를 기도했는지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교로 OUR STORY가 그려져 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색깔들의 조합이 뭔가 안 맞는 듯한, 어설픈 느낌을 안고,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고 버스에 짐과 몸을 맡겼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 공항 안에서는 그 어색했던 조합의 COLOR들이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면서, 완벽한 DE COLORES를 이루는 멋진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캔디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자신 인생은 GRAY COLOR였는데, AFA를 통해 COLORFUL하게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 나만이



겪던 감정이 아니라 참석한 캔디들도 한 마음으로 공감했던 그 이야기.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첫 팀멤버 미팅 후, 카톡으로 스페니쉬로 녹음된 주제가 “너 근심 걱정와도”를 받고 처음으로 차 안에서 들었을 때,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쁜 찬양을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당일 주일 아침, 엘살바도르에서 2만명이 출석하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특송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기홍 담임 목사님께서 2025년도에 전도 집회를 하실 그 교회는 10만 SQ FT 정도의 크기에, 에어컨이 없는 WAREHOUSE와 같은, 무대와 의자만 달랑 있는, 시설이

주 열약한 곳이었습니니다.

기쁜 마음으로 리허설 마치고, 예배 중 특송 차례가 와서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특송자들 가운데 중앙 언저리에 성도가 모두 보이는 곳에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1, 2 소절이 지난 후 었을까요. 완전 시골 교회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지인들을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내려,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찬양을 하였습니다. 가사를 다 외웠던 터라 입에서는 찬양을 계속 하고,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예배 후에 퇴장하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저에게로 다가 왔습니다. 조금 당황이 되었지만, 모두들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고, 함께 사진도 찍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사인만 해 주지 않았지 그 순간 한국의 유명 가수가 팬들과 함께 소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니다.

이렇게 저의 첫 선교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선교의 STORY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DIOS ESTA VIVO. DE COLORES.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I국 한OO/손OO 선교사

1. 방과후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2. 대학 한국어 강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3.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고 교회당과 방과후 학교가 건축될 수 있도록
4.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방과후 학교, 교사 양육, 어린이집 교사 월급 등) 채워질 수 있도록
5. 외부 한국어 강의실이 열리고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6. GMI 신학교 수업 준비 및 강의와 훈련생들이 주의 종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7. 저의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과 신분 보안, 비자 발급을 위해서



P국 정OO/화O 선교사

1. 태양광 전기시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14개 지역의 학교와 교회가 부흥 발전되고 자립이 앞당겨지게 하소서
2. 연 2회에 걸쳐 이 나라 3곳에 이 나라와 세계각지에서 몰려드는 300~500만 이상의 모이는 모슬렘 지도자들에게 산수수훈과 성경말씀을, 이 나라 각 지방의 말로 번역된 성경 어플과, 예수영화와 그리고 각 지방말로 번역되어 녹음된 전도 말씀이 수록된 녹음 어플를, 모바일 폰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인쇄한 블러셔가 100만장 이상 전달되게 하소서
3. 3월에 개강하는 신학교의 강사진이 기도와 말씀으로 강의를 잘 준비하여 시작하게 하소서



파나마 김재한 / Grace 선교사

1. 현재 미국 은혜선교관에 머물면서 영육간의 회복을 통해 2025년을 준비하는 선교사가 되길
2. 2024년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3. 선교사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플로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 신학교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4. 건축 중인 인디안 기숙사건축공사를 위한 재정이 채워 지도록
5. 선교사역에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6. 3월 24-27일까지 GMI 중남미 선교 포럼이 파나마에서 열리는데 준미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준비들이 잘 이루어 지도록
7. 선교사와 동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8. 다리엔정글지역 선교사가 개척한 6개(총 8개) 교회에 11월 중에 태양광 십자가 달기 사역을 합니다. 이를 위한 오천불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 이정식 선교사

1. 그리스 장기 비자 발급: 그리스에서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비자가 문제없이 발급되기를 기도합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함께하여,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이와 더불어 보다 많은 페르시아인들과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비자 문제로 그리스를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역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을, 기독교 페르시아인들에게는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Return_O_Persia)
3. 신학 학비: GMU에서 신학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학비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국 기OO 선교사

1. 2월 1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단체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며 비전을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2. SOG 사역을 위하여: 2025년 예정된 사역(전도 훈련, 비전 트립 등)에 학생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준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와 모임을 위한 공간이 예비될 수 있도록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후원학생들과 가족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전히 다른 믿음을 가진 학생과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로를 정하고 학교 장학금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후원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1인 매월 3만원)
4. 교육 사역을 위하여: 학생들이 성실하고 기쁘게 학업에 임하고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통로가 되도록
5. 인도네시아 물라유 종족군을 위하여
6.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7.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위하여
논문, 교생실습, 봉사활동 등의 학교 생활 마지막 과제를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8. 저와 사역자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CUBA 신학교 큐티
- 인도GIGL 9기
- 2025 은혜동산 말씀축제
- 태국 라오스 인카운터
- 필리핀 청소년 캠프
이번주에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파나마 GMI 중남미 권역 선교대회 (3/24-3/27)
문의: 정민 집사 (714-900-4194)
TM: 2/26(수), 6:30pm, 웨딩채플
- 터키 난민 인카운터 1기 (3/13-3/23)
추가 모집 4명
TM: 2/6(목), 6:30pm 119호
문의: 김태형 집사 (213-393-3215)

• 아르메니아 아라랏 TD #17 (3/16-3/24)

S/L: 백승환 선교사
렉터: 성재승 집사
코디네이터: 박유진 장로
문의: 박유진 장로 (714-334-4858)

• 터키 MEGL#15기 (4/20-5/1)

S/L: 한기홍 목사
렉터: 남상우 집사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O/T: 3/13(목), 웨딩채플

• 브라질 AFA #17 (4/28-5/5)

S/L: 송중호 목사
렉터: 김요셉 집사
문의: 김수영 집사(213-446-9514)
O/T: 2/27(목)

• 인도네시아 개척선교 및 신학교 사역 (5/9-5/17)

문의: 홍호철 장로 (562-900-4202)
총무: 이정호 집사(213-500-7939)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